

# 광주FC '고졸 루키' 정지훈 "영플레이어상 도전"

## 이정호 감독이 품은 기대주

빠른 스피드·골대 앞 침착 장점  
"모든 선수 장점 습득 위해 연구  
기성용·이청용 상대하고 싶어"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하고 영플레이어상도 바라보겠습니다."

올시즌 광주FC의 유일한 고졸 신인 공격수 정지훈(19)의 당찬 포부다.

대전유성생명과학고 출신의 정지훈은 지난해 12월 말 광주FC 유니폼을 입었다.

정지훈은 자신의 장점을 살려 팀 승리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로 태국과 제주 전지훈련을 소화하며 시즌 준비를 마쳤다.

175cm·65kg의 날렵한 체격을 지닌 정지훈은 빠른 스피드와 함께 드리블, 침착한 마무리로 고교 무대를 휩쓸었다.

최전방 공격수와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하며 2020 금석배 전국고등학생 축구대회와 전국고등축구리그 충남대전 지역 우승에 기여했다.

2022년 전국고등축구리그(전반기) 우승을 이끌며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고, 제55회 대통령 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한 경기 5골을 폭발시키는 등 촉망받는 유망주다.

이정호 감독은 정지훈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올시즌 가장 기대되는 선수로 꼽고 있다. 지난 시즌엔 신인 정호연을 발굴, 성장시켰다면 올해는 정지훈을 키울 작정이다.

지난 7일 광주의 3차 동계전지훈련지인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체육공원에서 만난 이 감독은 "올해 만들어보고 싶은 선수가 한 명 있다. 신인 정지훈이다. 벌써 싸수가 보이기 시작했고 기대된다. (정)호연이만큼 잘 뛰고 스피드가 있고 민첩하고 똑똑하다. 엄지성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지훈은 이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감독님이 너무 잘 챙겨줘서 살짝 부담스럽지만 믿어주시는 만큼

보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지훈은 올시즌 '영플레이어상' 수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프로 첫 시즌이어서 우선 경기에 출전하는 게 목표고 영플레이어상도 노력하겠다"며 "감독님께서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라"고 하셨다. 감독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셨다. 나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감독님과 분석관님께 물어보는데 정말 잘 챙겨주신다"고 말했다.

이어 "태국에서 볼 운동을 하루 하고 '광주에 오길 잘했다'고 느꼈다. 성적이 우선이 아니라 선수 개인의 발전이 우선이다. 감독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정지훈은 프로 첫 전지훈련에 대한 어려움도 털어냈다.

그는 "고교 때와 훈련 프로그램이 다르지 않지만 선수 퀄리티가 뛰어나 조금만 미스하면 바로 압박이 들어오고 바로 볼을 뺏긴다는 게 다른 점이다"며 "처음엔 적응 못해서 힘들었는데 하다보니 자연스

럽게 주위를 살피게 되고 볼 터치도 신중하게 하는 등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다"고 웃었다.

정지훈은 자신의 장점으로 '빠른 스피드와 골대 앞에서의 침착함'을 내세웠다.

그는 "힘 싸움에서 밀리는 부족함이 있지만 빠른 스피드와 수비를 속일 수 있는 드리블 타이밍, 공격적인 움직임, 골대 앞에서의 침착함, 득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스피드 레이스' 엄원상과의 스피드 대결에서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정지훈의 롤모델은 없다. 그는 "모든 선수들의 장점을 습득하기 위해 롤 모델을 정하지 않았다. 네이마르의 기술, 케빈 더브라워너의 패스 등을 배우려고 한다. 영상도 자주 보고 연구한다"고 말했다.

K리그1에서 만나고 싶은 선수로는 기성용(FC서울)과 이청용(울산 현대)을 꼽았다.

정지훈은 "기성용과 이청용 선배들과 직접 상대하면서 선배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느껴보고 싶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광주FC '고졸 루키' 정지훈이 지난 7일 팀의 3차 동계전지훈련지인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동체육공원 축구장에서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 광주FC 신임 경영본부장에 임근훈씨 선임

### 2023 비전 완수할 현장 전문가 "차별 경영으로 혁신 이끌 것"

프로축구 광주FC가 구단의 새 비전을 완수할 책임자로 임근훈(59·사진) 전 KBS광주 방송문화사업국장을 선임했다.

광주FC는 지난 20일 광주축구전용구장 3층 시청각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근훈씨를 신임 경영본부장으로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

임 경영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며 2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임 경영본부장은 구단의 2023 비전인 '시민에게 믿어주고 사랑받는 광주FC'를 만들어갈 총 책임자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는 KBS에 30여년간 몸담은 현장 전문가일 뿐 아니라 경영능력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일원화된 조직 개편과 차



별화된 경영으로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임 경영본부장은 "노동일 대표가 추진하는 4대 비전 완수를 큰 목표로 탄탄하고 안정된 팀을 만드는 게 선임의 이유이자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인 만큼 정직과 투명성을 최우선에 두고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구단의 보배이자 미래의 자산인 유소년 축구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일 대표이사는 지난 3일 취임식에서 새 비전과 4대 추진 전략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만들기, 구단 경영방식 개선, 시민 공감대 형성과 상생 추구, 유소년 축구 육성 등을 선정했다. 최동환 기자

## 고영구 주니어 국대 감독, 배드민턴협 최우수지도자상

광주 출신 고영구(사진) 배드민턴 주니어 국가대표 감독이 대한배드민턴협회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고영구 주니어 국가대표 감독은 지난 2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3년 대한배드민턴협회 표창식에서 최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고 감독은 지난해 10월 스페인에서 열린 '2022 세계주니어배드민턴선수권 대



회에 한국 주니어대표팀을 이끌고 혼합단체전 우승을 차지해 한국 배드민턴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로 최우수지도자에 선정됐다. 고 감독은 광주 출신으로 총장중과 전대사대부고에서 선수생활을 했고 전대사대부중·고에서 지도자로 활동했다. 최동환 기자

## 화순 출신 임예지·박초롱, 여자 복싱 국가대표 선발

화순 출신 여성 복서인 임예지(24·왼쪽)·박초롱(29)이 대한민국 복싱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대한복싱협회 주최 '2023년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임예지와 박초롱이 국가대표로 최종 확정됐다.

1차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던 임예지는 여자 54kg 이하 체급 결승에서 정주형(서귀포시청) 선수를 꺾고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박초롱도 여자 50kg 이하 체급 1차 선발전 1위에 이어 2차 선발전에서도 강도연(보령시청) 선수를 꺾고 1위를 차지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 김민재, 공수 맹활약

나폴리 김민재(오른쪽)가 22일(한국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도이체 방크 파르크에서 열린 프랑크푸르트와의 2022~2023시즌 UCL 16강 1차전 원정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 아우렐리오 부타와 볼다툼을 벌이고 있다. 나폴리는 이날 전반 40분 빅터 오시멘과 후반 20분 지오반니 디 로렌조의 연속골에 힘입어 2-0으로 이겼다. AP/뉴시스

## 전남드래곤즈, K리그2 정글서 승격 도전 나선다

### 내달 1일 FC안양과 홈개막전 이장관 감독 "승리 가져오겠다"



프로축구 전남드래곤즈가 정글같은 K리그2에서 승격 도전에 다시 나선다.

전남드래곤즈는 오는 3월 1일 오후 1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FC안양과 하나원큐 K리그2 2023 홈 개막전을 치른다.

이장관 전남 감독은 새 시즌 시작을 앞두고 승격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 감독은 "전남은 승격이라는 큰 목표를 세웠다. 우리에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전용구장과 사랑하는 팬분들, 미르

가 있다. 정글같은 K리그2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의 2023시즌 홈 개막전 상대는 지난해 K리그2 3위를 기록하며 승강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간 FC안양이다. 승격 후보로 거론되는 양팀이기에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홈 개막전을 준비하는 이 감독은 "작년에 있었던 스토리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지난 것에 너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재미있는 축구로 정정당당하게 경기할 것이고 홈 개막전이니 만큼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승리를 다짐했다.

이번 전남의 홈개막전 관람하려면 22

일 11시부터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매하면 된다.

전남은 홈 개막전 입장관중을 위해 아이패드, 다이슨 무선청소기, 다이슨 에어랩, 플레이스테이션5, LG와인셀러 등 푸짐한 경품을 준비했다.

2023 시즌은 코로나 대응 매뉴얼에 따라 경기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육성응원과 음식물 반입·취식 모두 가능하다.

포스코, 기업, 시즌권은 별도 예매없이 입장게이트에서 바코드 스캔 후 곧바로 입장이 가능하다. 원정석은 S6구역으로 운영되며 남문게이트로 입장이 가능하다.

최동환 기자